

# 제11차 아시아 산업보건학회 참관기

고려대학교의과대학

교수 염 용 태



「제11차 아시아산업보건학회는 '85. 11. 10부터 6일간 필리핀 마닐라시 국제학술회관(PICC)에서 개최되었으며 27개국의 약 500여명(한국대표 6명)이 참석한 바 있다.

11월 10일부터 5일간 거행되는 학회일정에 맞추어 9일 아침에 출발하도록 일행 모두의 비행기편은 OK였다. 그런데 출발당일까지 학회일정의 3차통보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귀국일자는 모두 미정인 셈이다. 출발부터 양치질 않고 아침먹는 기분이었다. 필리핀 정국에 대한 불안한 기사가 연일 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요새말로 찻찻한 기분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공군 예비역 장성의 후광으로 KAL에서 마련해 준 특석에 자리를 차지하여 떠날때의 기분은 상쾌하였다. 출발은 그런대로 좋았으나 도착후 첫번 지출에서부터 필리핀 특허인 바가지를 피할 수 없었다. 공항에 마중나온 여

행사 차편을 이용해 호텔까지 10분밖에 안걸렸는데 1인당 미화 10불씩 강요당하고는 역시하며 필리핀의 소문을 실감하게 되었다. 바가지 시범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재무장을 다집했다. 다시는 속지 않겠노라고

다음날 아침 우렁찬 필리핀 국가와 함께 제11차 아시아 산업보건학술대회 및 총회가 컨벤션 홀에서 시작되었다. 아시아산업보건협회는 그 연혁을 요약하면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모여 1954년에 처음 발족하였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상호 교환할 목적으로 3년마다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총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때의 목표는 산업장에서 유해인자를 최소로 줄임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근로조건 개선에 목표를 두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있다. 1956년에 동경에서 1차 회의를 열었고 그 뒤 3년마다 칼컷타, 마닐라 자카르타, 뭍베이, 동경, 그리고 1979년에는 9차 회의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1982년의 싱가포르회의에 이어 11차 회의를 마닐라에서 거행하게 되어 마닐라에서는 세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회장단은 주최국에서 회장이 당연적으로 선출되며 전번 주최국의 회장이 명예회장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회장단은 회장에 필리핀의 Dr. Reverente, Jr., 명예회장은 싱가포르의 Dr. Phoon 이고 부회장은 인도의 Dr. Kothari, 싱가포르의 Dr. Ting, 일본의 Dr. Tati, 뉴질랜드의 Dr. Stok, 그리고 한국의 조규상 교수로 구성되었다. 다음 12차 총회를 위한 회장선거는 결국 12차 학회의 개최국을 어디로 정하느냐는 문제와 같은 것으로 회장단 회의에서 인도와 태국을 놓고 열띤 토론이 전개되어 결국 두차례에 걸친 투표끝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의 지리적 호응을 얻은 인도의 Kothari 부회장이 당선되는 난산을 겪었다. 따라

서 다음 12차 아시아 산업보건학회는 1988년 인도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었다.

금번 학회에서는 세가지 특별연제를 채택하여 마닐라학회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첫째, 산업보건 실무자의 교육강화로서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회원국이 아닌 미국, 영국, 중공까지 각국의 산업보건 교육의 제도적 현실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문명학교수가 산업보건교육의 현실을 고려대, 연세대, 카톨릭의대등을 예들들어 설명하였다. 둘째로는 농민의 건강문제로서 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농약중독에 관한 개별발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차철환교수의 농약중독과 보건, 필자의 약물 장기 복용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세번째 특별연제는 영세산업장의 근로자 보건문제로서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한국의 공동연구를 나라별로 발표하고 한국의 현황은 조규상교수가 발표, 구연하게 되었다. 그 이외의 연제는 종래의 연구발표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이는 역시 학회를 주도해 왔던 일본이나 한국의 참여가 미진하여 그러했으리라 자위해 본다.

산업의학의 학문적 연구의 의욕을 북돋우고 저 젊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하는 학회장상의 수상논문도 그랬다. 영예의 회장상은 홍콩의 Dr. Ng이 차지하였다. 3명의 후보중에서 선발되었으며 “Rediographic and lung function effects of silica exposure in gemstone polishers”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으로서 논지의 독창성이나 연구의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 국내 학회 일반 연제의 수준보다 월등하다고는 결코 생각되지 않았으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후보자가 없었던 점이 아쉬웠기에 다음번에는 유능한 한국의 후학중에서 후보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었다.

연제발표를 통해 느낄수 있었던 것은 금번 학회에 우리나라의 연구발표가 너무 양적으로 적

었던 점이나; 그래도 질적인 면에서 김정만선생이 발표한 Zinc protoporphyrin lenel을 실제에 응용한 실험은 여러학자들로부터 우수하다는 평을 받아 체면을 세운 느낌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수준은 세계보건기구의 Dr. Batawi가 특별연제에서 예들들어 설명할 때, 한국의 산업보건을 인용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처럼 짧은 기간에 제도적인 면에서 기반을 구축하여 다른 개발도상국가에서 보기드문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시범으로서 여타 개발도상국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우리끼리 토론할 때는 건너야할 강과 넘어야할 산이 무수히 가로놓여 있음을 실감하지만, 대부분의 아세아지역 개발도상국가는 현실적으로 더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번 모임을 통해 느낄수 있었다. 차관을 들여다 해외로 유출하는 권력형 부조리가 피부로 느껴지고, 고관의 가족이 미국에 모두 나가 있고, 산업장 견학이라고 30여년전에 세운 맥주공장을 보여주는 웃지못할 현실을 보고, 그래도 노동부 장관은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자기나라 산업이 일본을 곧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허황한 웅변을 토하는 현실에서, 산업보건의 발달은 고사하고 근로자의 고용문제부터 근본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 6.25를 회상하게 만들고, 불안과 거짓이 풍성한데도 6,000년 역사를 내세우고, 동양에서는 상해와 함께 서양화된 첨단 문화도시라고 자랑하며, 자기는 스페인 혈통을 타고난 인종이라고 혼혈을 자랑하며,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면 더 좋겠다고하는 불쌍한 지도자들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필리핀 국민에게 저들의 신인 하느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빌며, 필리핀 항공기의 무뚝뚝한 씨비스를 받으며 대만으로 향한다.

Adios Pilipinos !/